

報 道 參 考 資 料

題 目 : 『企業支配構造 模範企業 施賞式 祝辭』

主要內容

□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1.6.28(목) 15:00 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음

○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시상식 개요

- 일 시 : 2001.6.28(목) 15:00 ~ 17:00

- 장 소 : 증권거래소

- 참석자 (약 200명)

· 증권업협회장, 상장사협회장, 증권연구원장

· KDI 원장(특별강연 연사), 상장법인 사외이사/대표이사/공시책임자

·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, 증권회사 대표이사 등

□ 주요 치사 내용

○ 허위공시, 분식회계, 주가조작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작업을 추진하여 정기국회에 제출

○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

○ 금융규제전반을 재검토하여 금융기관이 경영자율성을 높여 나가되, 경영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촉구

○ 장기적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어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기관이 출현하기를 기대함

※ 별첨 : 부총리 축사

報道資料生産課 : 證券制度課(500-5363~5)

증권제도과장 임종룡, 사무관 김태현

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

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
시상식

祝 辭

2001.6.28

副總理 兼 財政經濟部長官

陳 稔

< 인사말씀 >

□ 박 창배 증권거래소 이사장, 박 승복 상장회사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증권관계 기관장,

○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여러분 !

□ 오늘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뜻깊은 행사가 처음으로 마련되어,

○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□ 그리고 “모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”과 “모범적인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로 선정된 분”들에게 축하드리며,

○ 그 동안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각고의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

<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의미 >

□ 최고경영자, 그리고 임·직원 여러분!

□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기업 자체의 생존을 가름할 뿐만 아니라, 나아가 시장과 국가의 신뢰성을 좌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

□ 투명한 경영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감당하기에 부담이 될 만큼 많은 제도 개혁이 추진되어 왔습니다.

○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해방 이후 반세기동안 유지해 오던 理事會와 監事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고

○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.

○ 또한 민간이 중심이 되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과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이러한 제도개혁을 토대로 기업 스스로 합리적인 경영을 해 나가자는 노력이 확산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는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.

○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는 과거 형식적 기구에서 탈피하여 기업경영을 관장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.

○ 또한,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기업이익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하는 주주총회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.

□ 그러나 많은 제도개선과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관행은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.

○ 계열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재벌총수가 단독으로 하고 이를 견제하여야 할 사외이사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.

○ 분식회계를 통하여 기업의 재무상황을 왜곡하는 행위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□ 우리의 지배구조상황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
이지만은 않습니다.

○ 홍콩의 한 컨설팅회사의 조사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
OECD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의 정도에
상응하는 투명성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고
지적하고 있습니다.

□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
증시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
경영투명성이 부족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
많습니다.

○ 지난해 6월 맥킨지(Mckinsy)의 조사결과에 의하면
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대내외 투자
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주가프리미엄이 24%에
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.

<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 >

□ 최고경영자 여러분 !

□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하루 빨리
버려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.

○ 첫째는 “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갖추기만 하면
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”는 생각입니다.

- 정부가 그 동안에 해 온 기업지배구조개선조치는
뼈대를 만든 것에 불과하며 살을 붙여 제대로 된
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몫입니다.

-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기업지배구조개선으로
변화한 경영행태나 관행이지, 법률에서 요구하는
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아닙니다.

- 또한 우리 기업을 주시하는 대상은 전세계 투자자
이며, 그들은 투명한 기업경영을 중시하고 있는
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.

○ 둘째, “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”는 생각입니다.

-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.

- 과거 우리기업이 세계 제일의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하였듯이 선진국 수준의 지배구조를 갖춘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.

○ 셋째, “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면 대주주가 불편해진다”는 생각입니다.

-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.

- 이는 모든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.

○ ○

< 앞으로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추진방향 >

☐ 여러분!

☐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는 그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전체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.

○ 또한,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☐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.

☐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부터 허위공시, 분식회계, 주가 조작등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.

○ 7월부터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작업에 들어가 9월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10월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.

○ 기업규모가 큰 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.

□ 연기금·투신사 등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할 것입니다.

○ 98년도에 투신사와 은행신탁 등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으나,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○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.

□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.

○ 오늘 이 행사가 기업의 지배구조 상황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첫 모임입니다

○ 外國에서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듯이 지배구조 실태를 평가하는 민간기관이 있습니다.

-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기능이 확충되고, 민간중심의 전문평가기관이 출현되기를 기대합니다.
-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시장에 제대로 알려 지도록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기업보다 우대 받도록 할 것입니다.
- 금융기관도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.
- 금융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은 더 높여 나가되 금융기관 스스로도 경영과정이 소상히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
- 예를 들어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상황이 아직 투명하지 못하다는 시각이 있다면, 회사 스스로 신탁재산 가치의 평가업무 등을 객관적인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< 맺음말 >

☐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!

☐ 시장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시장기대에
부합하는 의식과 행동양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.

○ Korea Discount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직
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.

☐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
내년에는 **Korea Premium**을 話頭로 얘기할 수
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

○ 내년 이 행사에서는 더 많은 모범기업과 경영인들이
달라진 우리의 기업문화를 빛낼 수 있게 되기를
바랍니다.

☐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드리며,
그 동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기업지배구조개선
위원회와 증권거래소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

☐ 감사합니다.